

Daniel 2 – Sermon Notes

Title: Carried away to Babylon

Scripture: Daniel 1:3-7

Date preached: June 16th 2024**Scripture: Daniel 1:3-7**

3 Then the king instructed Ashpenaz, the master of his eunuchs, to bring some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some of the king's descendants and some of the nobles, 4 young men in whom *there was* no blemish, but good-looking, gifted in all wisdom, possessing knowledge and quick to understand, who *had* ability to serve in the king's palace, and whom they might teach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Chaldeans. 5 And the king appointed for them a daily provision of the king's delicacies and of the wine which he drank, and three years of training for them, so that at the end of *that time* they might serve before the king. 6 Now from among those of the sons of Judah were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7 To them the chief of the eunuchs gave names: he gave Daniel *the name* Belteshazzar; to Hananiah, Shadrach; to Mishael, Meshach; and to Azariah, Abed-Nego.

3 느부갓네살왕은 궁중 대신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4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 자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5 왕은 또 자기가 먹는 제일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 가운데서 날마다 그들에게 일정한 양을 공급하였으며 3 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끝나면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6 그 뽑힌 소년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 7 궁중 대신은 그들의 이름을 바빌로니아식으로 다니엘은 벨트사살, 하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아사랴는 아벳네고로 각각 고쳤다.

Review

Before we turn to examine today's portion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Last Sunday we began our study of the Book of Daniel. We spent some time surveying the book and answering some of the important questions necessary before reading any book of the bible. That is not to say that we cannot just pick up our bibles and begin to read. A method known as the lucky dip approach. We have all probably had experiences doing just that and being blessed by the Holy Spirit. We are guided to a verse, or passage that seems to directly address us on that particular day.

However in most cases we gain far more understanding, appreciation and enjoyment when we take the time, and make the effort to carefully study what it is we are reading. A little time spent in background reading or research really helps the bible come alive.

So last time we asked a series of questions that furnished us with this important background. If you missed last week's sermon I recommend going back to listen to the sermon or reading the notes as I shall only very briefly go over the key things here.

We learnt that what we are reading in Daniel is a mix of narrative history, prophetic oracle, and apocalyptic material.

This knowledge will be vital when we come to interpret what it is we are reading. The way we approach apocalyptic material differs greatly to the way we read and understand narrative history.

We also looked at the authorship of the book. Although modern scholarship questions whether a "real" Daniel ever existed I am fully convinced that he lived and wrote this book. The orthodox position is that Daniel was a real man who lived 600 years before the birth of Christ. Both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evidence affirms him as being the author. When it comes to the internal evidence we see that the book claims to have been written by Daniel. On nine different occasions we read the phrase, "I Daniel..." The best external evidence is that the Lord Jesus Christ spoke of Daniel as being a real prophet (Matt 24:15). That's good enough proof for me.

We then went on to consider the dating of Daniel. Again in modern times the traditional date has come under scrutiny. However, once again the arguments of the sceptics do not convince me. They seek to dismiss the prophetic elements of the book by claiming its accuracy comes from being written after the events it describes have taken place. Clearly such a view rejects the supernatural elements of the book and the fact that God revealed many things to Daniel. That is the whole essence of the book! Remove that and what's left? I believe that Daniel was written at some point between 536 – 530 BC.

Following this we touched briefly on Daniel's purpose in writing and the audience he had in view. He wrote to encourage his fellow Jews to have courage and not to lose hope in God. Things were difficult, and they were facing a hard time living in exile. But God remained in control. He would never leave them or forsake them.

We finished up our survey by briefly outlining what the book of Daniel is all about. The first 6 chapters, part one outline the experiences o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as they adjust to their new life in exile in Babylon. These brave young men faced serious trials but on each and every occasion refused to compromise. In part 2, chapter 7 to 12 we read of four visions of the future given to Daniel.

With our survey complete we examined the first two verses of chapter one.

Daniel begins by placing us at a very particular and significant moment in Judah's history. The wicked and ungodly king Jehoiakim was on the throne of Judah. Israel their northern neighbour had already fallen back in 722 BC. God in His mercy had granted Judah, who at least had some good rulers a grace period of 120 years. However God's patience eventually ran out. He would use the Babylonians as His instrument to bring punishment and eventually induce change.

In 605 BC Nabu-Kudduri-Utzer became king of the Babylonian empire. We know him better as Nebuchadnezzar II. He was an ambitious young man of 25 who wanted to see his empire flourish and grow. He had beaten back the Egyptians and the Assyrians and now had his eyes on little old Judah. In September 605 BC he marched his forces down to Judah and besieged Jerusalem. This was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end of Judah.

In 597 BC he returned again to attack the city, and in 586 BC after the puppet king Zedekiah rebels he comes for his third and most devastating attack. Jerusalem was burnt to the ground and the temple is destroyed.

But back to 605 BC. The city of Jerusalem is unable to hold off the Babylonian forces and is quickly overrun. King Jehoiakim is taken in exile to Babylon. Along with him are also taken some of the priceless treasures looted from the temple.

I spoke to you last time about the significance of this act.

In the ancient world each people group or nation had their own god, or in most cases gods. When you defeated your enemy on the battlefield it meant that the gods you served had also enjoyed a spiritual victory over your enemies gods. So you took the treasure or idols of your enemy and placed them as an offering of thanks to your gods, or S trophies in your own temples or religious sites. So what we are reading about here is a catastrophic event for God's people.

Their capital city had fallen, their temple had been defiled and the temple furnishing and articles that were needed to properly worship God had been taken away to an evil pagan land. Surely things could not get any worse. Well,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as we shall discover today.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

리가 성경을 집어 들고 바로 읽기 시작하면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럭키 딥 접근 방식 lucky dip approach 이라고 알려진 방법인데,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 마치 우리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구절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연구할 때 훨씬 더 많은 이해와 감사,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책들을 읽고 조사를 하면 성경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에 이러한 중요한 배경 지식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주 설교를 놓치셨다면 지금은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할테니 설교를 듣거나 노트를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니엘서는 서술적 역사, 예언적 계시, 묵시적 자료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본문 내용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시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방식은 서술적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방식과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또한 책의 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진짜” 다니엘이 존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저는 그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 책을 썼다고 확신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다니엘이 그리스도 탄생 600 년 전에 살았던 실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다니엘서에서 그 책을 다니엘이 썼다고 기록합니다. 무려 아홉 번에 걸쳐 “나 다니엘은 I Daniel...”이라고 시작합니다. 최고의 외부 증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이 참 선지자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서가 쓰여진 연대를 살펴 보았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연대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론자들의 이런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미 일어난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책의 예언적 요소를 무시합니다. 그러한 견해는 다니엘서의 초자연적 요소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셨음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전체 본질인데 말입니다! 그걸 없애 버리면 뭐가 남나요? 저는 다니엘서가 기원전 536 - 530 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이 글을 쓴 목적과 그 청중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썼습니다. 상황이 어려웠고, 그들은 유배지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개요를 마쳤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1-6 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빌론 유배 생활에 적응하면서 겪는 경험을 서술합니다. 이 용감한 젊은이들은 심각한 시련에 직면했지만 모든 경우에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7-12 장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네 가지 환상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서의 개요를 마치면서 1 장의 두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다 역사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시약하고 불경간한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 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 유다에게 적어도 몇몇 선한 통치자들이 있었던 120 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결국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형벌을 내리시고 결국에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원전 605 년에 나부 쿠두라 우처(Nabu-Kudduri-Utzer)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2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번성하고 확장되길 원하는 25 세의 야심찬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인과 앗수르인을 패배시킨 후 작고 힘없는 유다를 향합니다. 기원전 605 년 9 월에 그는 그의 군대를 유다로 진군시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다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97 년에 그는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고, 기원전 586 년에는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세 번째로 와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기원전 605 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빠르게 함락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와 함께 성전에서 약탈한 귀중한 보물도 일부 가져갑니다.

지난 번에 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 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각 종족이나 국가마다 고유의 신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다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적의 신들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의 보물과 우상을 빼앗아 자기들 신에게 감사의 제물로 바치고, 신전에 약탈한 전리품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재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함락되었고, 그들의 성전은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데 필요한 성전의 비품과 기구들은 약탈되어 사악한 이교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황이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인 것 같습니다. 글썄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3 Then the king instructed Ashpenaz, the master of his eunuchs, to bring some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some of the king's descendants and some of the nobles,

We spoke last time about king Nebuchadnezzar taking some of the valuable, and indeed necessary furnishings and articles from the temple back to Babylon. I spoke then about his motivations for doing so. Here we see that the king also has his eyes focused on another priceless treasure. In addition to the material prizes he has acquired, he also wants to take back som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other nobles. Or to put it more plainly he wants to take the cream of Judah's society back to Babylon. What was his motivation in doing this?

Well, it demonstrates that Nebuchadnezzar though young was clearly no fool. He was actually a very shrewd operator. Taking these important people back as hostages meant he now had some degree of leverage over God's people. Those left in Judah would be less likely to revolt or rebel knowing that their countrymen were being held in Babylon. This would especially be the case if your young son or daughter had been carried off into exile. Also it cemented in the remaining population's minds the fact that they were now living under Babylonian rule. Whenever they noticed a gap in the social hierarchy they would remember where this person had gone. They would realise that their best and brightest young people had been taken away. But Nebuchadnezzar had other longer term goals in mind.

He wanted to “Babylon-ize” Judah's elite (the children of Israel). He believed that he could harness their intellect and skills and use them for his own benefit. His intention was to provide them with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ould excel. In doing so he could harness their intellectual abilities and win them over to a Babylonian world-view. The more they assimilated into Babylonian ways the less likely they were to rebel against his rule. Perhaps he also intended to eventually send them back to rule or govern things on his behalf. It really was a very good plan.

We saw a similar thing take place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Americans and the British recognised that Germany had a high level of very elite scientists. Men whose skills and knowledge would be of great benefit to the allies. Of equal importance was the knowledge that the Russians were also keen to obtain the information these scientists held. So in 1945 a covert affair originally dubbed “Operation Overcast” but later renamed “Operation Paper-clip” was launched. The program ran until around 1962 and resulted in roughly 1,600 German scientists and their families being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to work. One of the most well-known recruits was the rocket expert Wernher von Braun. Von Braun later became director of NASA's Marshall Space Flight Center, and the chief architect of the Saturn V launch vehicle. So a man who had originally used his skills to design the V2 rockets that destroyed many UK cities went on to propel two doze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Although the allies knew how useful these German scientists could be they perhaps did not appreciate at the time the valuable contribution they would go on to make. We are going to witness a similar thing here. King Nebuchadnezzar can hardly have anticipated the value that Daniel and his friends would bring to the Babylonian empire.

So Nebuchadnezzar instructs the “master” of his eunuchs a man named Ashpenaz to select and

bring some choice members of Judah's elite back to Babylon. He was tasked with finding men suitable to come and work in the king's palace.

As an aside many have wondered over the years whether Daniel was himself made into a eunuch. The Jewish historian Josephus seems to imply this, in his Antiquities of the Jews we read, *"He [Nebuchadnezzar] also made some of them the most noble of the Jewish children] to be eunuchs."* (Antiquities of the Jews, 10:10:1)

We know that Daniel served in Babylon during a time in which most slaves were castrated and made eunuchs. This was usually a prerequisite for those employed in the royal court. This was done to minimise the potential for court intrigues, and prevent court officials fathering children who might rise up against the king. Additionally we know that Daniel was never married. We also have an interesting verse recorded in 2nd Kings. It reads as follows;

‘And they shall take away some of your sons who will descend from you, whom you will beget; and they shall be eunuchs in the palace of the king of Babylon.’ (2 Kgs 20:18)

Is this a reference to Daniel and his friends? In truth the bible does not say either way, so we cannot be dogmatic on the issue. Whether Daniel was or was not a castrated eunuch is ultimately irrelevant to his role in God's plan.

Let us read on and see what criteria Ashpenaz was to apply when looking for potential Israelites.

3 느부갓네살왕은 궁중 대신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지난 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쓰이는 귀중한 기구와 비품 중 일부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에서 왕은 또 다른 귀중한 보물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전리품만 아니라 일부 왕족과 귀족들을 붙잡아가고 싶어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는 유다 사회의 핵심 인물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비록 어렸지만 바보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실 매우 영리한 통치자였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감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됨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이 바벨론에 잡혀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들이나 딸이 포로로 끌려갔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현재 바벨론의 통치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심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계층의 공백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훌륭하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른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엘리트(이스라엘 자손)를 “바벨론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지성과 재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탁월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들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고 그들에게 바벨론 세계관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방식에 동화될수록 그의 통치에 반역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 자신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도록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계획이었습니다.

제2 차 세계 대전 끝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이 매우 높은 수준의 엘리트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지식이 연합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지식은 러시아에게도 중요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 과학자들이 가진 정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원래는 "오버캐스트 작전(Operation Overcast)"이라고 불렸으나 나중에 "페이퍼클립 작전(Operation Paper-clip)"으로 이름이 변경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1962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대략 1,600 명의 독일 과학자들과 가족들이 미국으로 데려져 왔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과학자는 로켓 전문가 베르너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

n)이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나중에 NASA 의 마셜 우주 비행 센터 Marshall Space Flight Center 소장이자 새턴 V 발사체의 수석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많은 도시를 파괴한 V2 로켓 설계에 사용되었던 기술을 이용하여 24 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달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동맹국들은 이 독일 과학자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나중에 어떤 귀중한 공헌을 하게 될 지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 제국에 가져올 가치를 거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인 아스부나스에게 지시하여 유대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을 선택하여 바빌론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담으로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내사가 되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고대사' 에서 다음과 같이 암시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유대 자손 중에서 가장 귀한 자들 몇 명을 선택하여 삼아" (유대 고대사 10:10:1)

다니엘은 대부분의 노예가 거세되어 고자로 만들어졌던 시대에 바빌론에서 관직에 있었습니다. 거세는 일반적으로 왕실에 고용된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궁정에서 음모를 꾸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궁정 관리들이 왕에게 반역할 수 있는 자녀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 거행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에도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이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왕하 20:18)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언급일까요?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독단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거세된 내시였는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가 맡은 역할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적임자를 찾을 때 아스부나스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young men in whom there was no blemish, but good-looking, gifted in all wisdom, possessing knowledge and quick to understand, who had ability to serve in the king's palace, and whom they might teach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Chaldeans.

I'm sure we can all remember a time when we have applied for a new job or new position. These days job postings are placed online, and they always include a detailed list of what potential candidates require. Typically, included in such documents are what level of qualifications are expected, what previous work experience is preferable, how old a candidate should be and what kinds of skills or expertise a candidate is anticipated to possess. Here in verse number four we have a job description given for the kinds of men Nebuchadnezzar was seeking for positions at his palace. Simply stated he wants only the brightest and best. Anyone else need not apply! Let us look at each criterion in turn.

Firstly they were to be **young**. The text emphasizes their youth and hints at their inexperience. Although there are words in biblical Hebrew that would indicate that Daniel was an adolescent or a young man, the author here employs the Hebrew word "yela'dim." This word usually means "children" or "boys." As I have mentioned to you before most scholars think that Daniel and his friends were teenagers aged somewhere between 13 and 20. This was deemed the perfect age to mould and permanently shape these young men.

How true this is. As Aristotle said, **"Give me a child until he is seven and I will show you the man."** Today we often see young people in schools and universities being subjected to intense indoctrination and in effect "brainwashing."

We should never forget our God given roles to properly raise and educate our children to know and love the Lord. An hour a week in Sunday school cannot really compete with 50 hours in the public school system.

Secondly they were to be **without blemish**. This is referring to both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also to any potential character flaws. Those chosen are to be “perfect” specimens. No one with a handicap, deformity, visible deficiency or obvious character flaw was to be selected.

Thirdly they were to be **good looking**. These men were to be seen in and around the king's royal residence. Naturally the king did not want to be surrounded by ugly things or ugly people. He lived in a sumptuous palace. Therefore he only wanted to set his eyes upon those with pleasing or facial or physical features.

Throughout the Bible, the physical description of a character is often a clue to his or her personality. We might also add here that Gentile nations often interpreted attractive appearance to mean the gods had gifted said individual. So someone who was physically attractive was regarded as having been blessed by the gods. This made them a good person to employ, or just be around. Even today there is a widely held belief that good looking people have an easier life and receive many benefits. I've never found that to be the case (I'm joking).

Fourthly they were to be **gifted in all wisdom, possessing knowledge and quick to understand**. We get here some insight into the purpose for which these men were being selected. The intention was to train or educate them for future palace service. Therefore young men who neither had the intellectual capacity, or aptitude for study were to be excluded.

Writers of the Old Testament regarded the knowledge of God as the beginning of wisdom (Prov. 1:7). This was not likely to have been a priority for Nebuchadnezzar. Nevertheless he is seeking smart young men, who are wise and who possess a good degree of common sense. Part of his motivation in selecting from the elite levels of society i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received a good education in their homeland. Things are not so different today. We tend to assume that the children of the wealthy have received a better quality education than those on the lower socio-economic levels. This is because they can afford the best schools and private tuition if needed.

So when we put all this together what must our conclusions be? Obviously that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are amongst the brightest and best of the children of Israel. The job description was exact and demanding. Daniel and his friends have met the very high standards. Donald Campbell sums it up nicely in his book on Daniel.

“Daniel had no physical blemish and was pleasing in appearance. Mentally, he was intelligent, knowledgeable, and quick to learn. Socially, he was poised and able to live in the king's court without creating embarrassment for himself or others.” (Donald K. Campbell, Daniel: Decoder of Dreams, p.9)

These chosen men are to be taught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Chaldeans. Who exactly were the Chaldeans? The word can, depending on the context have several meanings. On occasion it is used to refer generally to the Babylonian people. Actually, if we want to be precise the Chaldeans were an ethnic and political group from south-west Babylon. So at times Chaldean may be indicating people from this geographic location. The word also appears several times as a reference to specially trained Babylonian astrologers (Daniel 2:2, 4, 5, 10; 5:11). So Chaldean is used most often to refer to a social class of highly educated people (astrologers and court magicians).

The Chaldeans spoke a Semitic dialect resembling Akkadian and slightly related to Hebrew. Daniel and his friends may have had some knowledge of this language already.

The main point here though is that they were to be instructed in these things in order that they be successfully assimilated into Babylonian society. Learning the language of a people is one of the best ways to absorb the world-view of that particular culture. We should also not overlook what this

learning of Chaldean language and literature entailed. These people were pagans who dabbled in witchcraft and the occult. Daniel and his friends would not be exposed to, and learning things that were good and wholesome. There would be no mention in the Chaldean literature of God and His goodness.

Let us read on.

4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 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삼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직장에 지원했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요즘 채용 공고는 온라인에 게시되며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지원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 경력력자 선호 여부, □□,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또는 전문 지식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 4 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그의 궁전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최고만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제시한 기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젊어야 young** 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젊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마숙함을 암시합니다. 성경적 히브리어에는 청소년 adolescent 또는 청년 young man 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 저자는 히브리어 단어 “yela dim”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어린이” 또는 “소년”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3- 20 세 사이의 십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는 그들을 교육하고 인격을 영구적으로 형성하기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7 살이 될 때까지 □□□□ 어린 아이를 주면 □□ 그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될 지 보여주겠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와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세상적인 교리로 사실상 “세뇌”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에 겨우 한 시간은 공립학교에서의 50 시간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둘째, **흠이 없어야 without blemish** 했습니다. 이는 외모와 성격상 결함을 모두 의미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완벽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 기형, 눈에 띄는 결함 또는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셋째, **잘생겼어야 good looking** 했습니다. 이들은 왕궁의 인편에서 왕을 섬길 것입니다. 당연히 왕은 못생긴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를 기쁘게 하는 얼굴과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의 신체적 묘사가 종종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이교 국가들은 종종 매력적인 외모를 신들이 그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고용하거나 주변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잘생긴 사람은 삶이 더 편하고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농담입니다).

넷째,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이해력이 빨라야 gifted in all wisdom, possessing knowledge and quick to understand** 했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들이 선택된 목적을 봅니다. 그들은 미래에 궁궐에서 일하기 위해 훈련받고 교육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을 배우기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잠 1:7). 물론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롭고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진 영리한 청년들을 원했습니다. 그가 유대인 중 엘리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부유층의 자녀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나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최고의 학교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가장 영리하고 탁월한 아스라

엘 청년들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분명하고 기다렸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높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도널드 캠벨(Donald Campbell)은 다니엘서에 관한 그의 책에서 이를 적절하게 요약했습니다.

“다니엘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외모도 아름다웠다. 정신적으로 그는 총명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사회적으로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왕궁에서 살 수 있는 ㅁㅁㅁ 갖추고 있었다” (Donald K. Campbell, *Daniel: Decoder of Dreams*, p.9)

이 선택된 청년들은 갈대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갈대아인 Chaldeans 들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대아인은 바벨론의 남서쪽에 살던 민족적, 정치적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갈대아인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특별히 훈련받은 바벨론 점성가들을 언급할 때도 여러 번 사용됩니다(다니엘 2:2, 4, 5, 10; 5:11). 따라서 갈대아인은 고도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속한 사회 계층(점성술사와 궁정 미술사)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갈대아인들은 아카드어 Akkadian 와 유사하고 히브리어와 약간 연관성이 있는 셈어 방언 Semitic dialect 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이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바벨론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야 했습니다. 한 민족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특정 문화의 세계관을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갈대아 언어와 문학을 배우게 하는 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술과 신비술을 쓰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선하고 건전한 것들을 접하거나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갈대아 문학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5 And the king appointed for them a daily provision of the king’s delicacies and of the wine which he drank, and three years of training for them, so that at the end of that time they might serve before the king.

As we just saw these were highly valued individuals. They had faced intense scrutiny and evaluation. To be selected must have been seen as a highly prestigious honour. Obviously they would have missed their families and their homeland, but they would have felt privileged in some ways to have been afforded this opportunity. The honour and prestige is amplified when we read here that they would be given the same kinds of food and drink given to the king. As I am sure you can imagine the king only ate and drank the finest foods and the best wines. Now clearly as “captives” the Babylonians would have had to feed them. But not necessarily the choice foods earmarked for the king. Slaves would normally only expect the leftover dregs.

Actually in giving these men the king's food it demonstrates a cunning level of manipulation on the part of the Babylonians. They were engaged you see in a process of forced assimilation. They wanted these prisoners from Judah to be fully immersed in the culture of Babylon in order to win them over. They wanted to persuade them to adopt said culture, to give up all they had known in Judah and become Babylonian.

To do this the Babylonians in effect pampered them. They were given nice accommodation, fine clothes to wear and the best food to eat. What reaction would this kind of treatment produce? In most cases God's people would have to concede that life was not too bad, it might even be classified as good. The Babylonians, though pagans were considerate and decent people. Therefore the average Jew might have to concede that they could lead a good and productive life here.

The forced assimilation training program would last for three years. During this time they would receive the best tuition from the finest Chaldean scholars. You may wonder what they studied. Allow me to enlighten you. Both Babylonian and Jewish curricula included scribal arts, lexicography (The process or work of writing, editing, or compiling a dictionary), the study of natural phenomena, medicine, religious studies, economics, business, law, and government. Or, as Paul Lederach has it in his commentary,

Daniel and the others would study,

“the omens, incantations, hymns, prayers, rituals, myths and legends, formulas, and mathematics of the Chaldeans, the experts in astrology and magic.”

(Daniel 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 p.36)

Does that sound like fun?

The Babylonians were confident that when the training ended these men would be ready to serve in the royal palace. Let us conclude our study today by meeting four of the men accepted into this illustrious training program.

5 왕은 또 자기 먹는 제일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 가운데서 □□□ 그들에게 일정한 양을 공급하였으며 3 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 왕 앞에서 삼길 수 있도록 하였다

방금 보았듯이 이 젊은이들은 매우 귀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검사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왕에게 발탁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가족과 고국이 그리웠겠지만, 이러한 기호가 주어진 것에 대해 어떤 면에서 특권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랑 마실 것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예와 특권을 더욱 부각합니다. 왕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술만을 마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려 왔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을 먹여살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바쳐진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노예는 보통 남은 찌꺼기들을 먹습니다.

실제로 이 젊은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준 것은 바벨론인들의 교화한 수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강제 동화 forced assimilation 방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게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고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바빌론인들은 그 유대 젊은이들을 최상으로 대우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숙소와 좋은 옷,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접은 어떤 반응을 불러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 조차 그런 삶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삶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이교도인들이지만 시려 깊고 품위가 있어.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동화 훈련은 3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젊은이들은 갈대아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최고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빌론과 유대인 커리큘럼에는 서사 예술, 사전 편찬 (사전을 작성 편집 또는 편찬하는 작업), 자연 현상 연구, 의학, 종교, 경제, 비즈니스, 법률 및 정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게다가 Paul Lederach 가 그의 논평에서 말했듯이,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장조 주문 찬송가 기도 의식 신화와 전설 공식 수학 갈대인의 점성술과 미술** (다니엘산자들과교회 성경주석 p.36)

재미있을 것 같나?

바빌론인들은 이 젊은이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왕궁에서 일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네 명의 젊은이들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 Now from among those of the sons of Judah were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7 To them the chief of the eunuchs gave names: he gave Daniel the name Belteshazzar; to Hananiah, Shadrach; to Mishael, Meshach; and to Azariah, Abed-Nego.

We are introduced here to the books four main protagonists. These men will form the central core around whom part one of the book revolves.

It should be obvious but worth emphasising here that they were just four of many carried away into exile. The fate of many of those thousands is unknown. One figure I saw placed the number at close to 10,000 people taken into exile. So as we read the story of Daniel and his friends we might think

about all those Israelites who were also carried away and forced to assimilate into a strange pagan world.

We learn firstly that they were **sons of Judah**. Clearly we can take this to mean that they were Israelites, members of God's chosen people. It also strongly indicates that they were of the tribe of Judah. We are then given their Hebrew names. You will note that their names end in either “el” or “ah/ yah.” This is not an accidental coincidence. It is quite deliberate. It is because their names are connected or linked in some way to the God of the bible; Elohim or Yahweh. They all possessed good God-fearing parents who named their children wisely.

Let us look at each name in turn. First we have Daniel.

- Daniel means “God has judged.”
- Hannaniah means “The Lord had been gracious.”
- Mishael means “Who is like the Lord” or “Who is what God is.”
- Finally we have Azariah whose name means, “The Lord has helped.”

These are good names for a devout Israelite, but won't do in Babylon. As we spoke about before the Babylonian intent was to completely assimilate these men and make them Babylonian. Therefore Asphenaz, who would have been a highly educated and smart man gives them new names. Names that will be more “appropriate” for people now living in this pagan world. Monikers that would not refer to Yahweh, but instead indicate a link or connection to Babylonian deities.

Let's examine their new names.

- Daniel is renamed as Bel-teshazzar. The most popular and revered Babylonian deity was Marduk. He was often referred to as Bel which means “Lord” in much the same way that “Baal” does. So the name Bel-teshazzar means “Bel (Marduk) guard his life.”
- Hannaniah is renamed as Shadrach (Shad-raku). The Babylonians recognised and worshipped the sun god Ra or Rach and also a god named Aku. So Shadrach may either means “Illuminated by the sun god” or “command of Aku.”
- Meshach (Mesh-aku) may mean “Who is what Aku is?”
- Finally we have Abed-Nego (Aded-Nebo / Nabu). Nabu was the Babylonian god of scribes, literacy, and wisdom. So Abed-nego simply means “servant of Nabu.”

Daniel and his friends were devout and committed Israelites. They worshipped God and sought to be faithful to Him. We can therefore only imagine the great unhappiness and distress they experienced when their good God honouring names were replaced by names intended to praise and acknowledge demons. However as we shall see they did not allow the external labels placed upon them to change the internal commitment they felt to God. They were able to resist the urge to conform to the labels they had been given.

How pertinent this issue remains today. How often do we label people in ways that can cause them discomfort and in some cases damage the lives they are able to lead. Some of the common negative labels we use for people include, fat, lazy, weak, a loser and stupid. We may also label people based on what we know about their past. This person is a play-boy, a slut, an addict, a criminal, a drunkard or someone with an unsavoury reputation. I wish I could say that the church was a label free zone but that's not the case. Even Christians get involved in the dangerous practice of labelling. The danger of labelling others lies in two distinct realms.

Firstly when we label others it means that we only see this person in this negative light. The label we impose acts as a barrier to us really knowing and understanding this person.

Secondly, it may affect how these people see themselves. When we label and convey to others that we think that they are bad what often happens? What happens is that they adopt the label and accept it as reality. Everyone sees me as a bad person, perhaps I really am a bad person. Let me remind you of what the Apostle Paul said in his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16 Therefore,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Even though we have known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yet now we know *Him thus* no longer.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old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2 Corinthians 5:16-17)

Paul is reminding us here that when we come to Christ we are reborn, we become a new creation. That means our sins of the past are washed away. We are not to remember and label people in the church with their former sins. If this is something we do let us repent and turn away from this sinful practice.

Let us conclude by talking about what we can learn from today's passage.

6 그 뽑힌 소년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 7 궁중 대신은 그들의 이름을 바빌로니아식으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리는 아벳느고로 각각 고쳤다

여기서 네 명의 주인공들이 소개됩니다. 다니엘서의 첫 번째 부분(1-6 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유대인들 중 네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다른 포로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한 수치에 따르면 유배된 사람들이 거의 10,000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낯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동화되도록 강요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네 젊은이들은 **유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아스리엘 사람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다 지파에 속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들의 히브리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el" 또는 "ah/yah"로 끝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우 의도적으로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Elohim 또는 아훼 Yahweh.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자헤롭게 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God has judged.'
- 하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The Lord had been gracious.'
- 미사엘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Who is like the Lord' 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Who is what God is.'
- 마지막으로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The Lord has helped.'

이 이름들은 경건한 이스라엘인에게는 좋은 이름이지만 바벨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인들의 의도는 이들을 완전히 동화시켜 바벨론인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높고 영리한 궁중대신 아스부나스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교당 바벨론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더 "적절"한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관련이 없고 바빌론 신들과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다니엘의 새 이름은 벨드사살 Bel-teshazzar 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숭배받던 신은 마르둑(Marduk)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주 Lord"를 의미하는 벨 Bel 로 불렸는데 "바알 Baal"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벨드사살은 "뱀 마르둑이 그의 목숨을 지키다 Bel (Marduk) guard his life."는 뜻입니다.
- 하나는 사드락(Shad-raku)으로 개명되었습니다. 바벨론인들은 태양신인 라(Ra) 또는 라크(Rach) 그리고 아쿠(Aku)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Shadrach 는 "□□□□□ □□□" 또는 "Aku 의 명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메삭(Mesh-aku)은 “누가 Aku 와 같으랴 Who is what Aku is”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벳네고(Abed-Nebo/Nabu)입니다. 꺄꺄(Nabu)는 바빌론의 서기관 읽고 쓰기,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벳네고는 “나부의 종servant of Nabu”을 의미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분께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이름 대신 악귀를 찬양하고 인정하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겪었던 좌절과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내적인 헌신을 결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요구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붙이는 부정적인 꼬리표는 똥똥하다, 게으르다, 약하다, 실패자, 멍청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과거를 들추면서 꼬리표를 붙이기도 하는데 비람둥이, 창녀, 중독자, 범죄자, 술고래 또는 평판이 나쁜 사람 등등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꺄꺄꺄꺄꺄꺄꺄 꺄꺄 꺄꺄 꺄꺄 꺄꺄.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위험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꼬리표는 그 사람을 실제로 알고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둘째, 꼬리표가 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 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꺄꺄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꼬리표가 붙은 사람은 그 꼬리표가 의미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들 나를 나쁘다고 하는데, 어쩌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꺄꺄꺄꺄꺄 꺄꺄 꺄꺄꺄꺄.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 꺄꺄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6-17)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죄가 씻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이 죄된 행위에서 돌아키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one point to make from today's study.

오늘 공부를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Resisting what the world desires

Daniel,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under an immense amount of pressure to give in and conform. The Babylonians were very clever. They knew that these Jewish exiles were much more likely to conform to the values and culture of the Babylonians if they were encouraged to forget all about their past. To facilitate this they gave them new homes, a new language and new names. The intent was simple, break and then remake these men as good Babylonians. It would not be easy for these four Hebrew men to resist this cultural pressure. And yet as we shall see over the next few weeks they did resist conforming to the wishes of the Babylonian world.

Today we saw how the Babylonians sought to change them by overwhelming them with luxury. Come and be trained by the best scholars we have available. Three years of wonderful free education. Live in this nice accommodation, and enjoy the same delicious foods and drinks enjoyed by the king. How tempting these things might have been to these four young men. And yet they resisted.

We too may be tempted by the nice things available to us if only we were to compromise. We might get a promotion at work if we cheat a little, or cook the books. What's the harm? Everyone else is doing it! We might get higher scores at school or university if we plagiarized a little. What's the harm? Everyone else is doing it! We could be financially better off if we cheated on our taxes. What's the harm. Everyone else is doing it!

Perhaps we could succeed in the world, and make better progress if we were not so openly Christian. If we kept our faith a secret maybe we could gain some advantages. But what small measure we gain here on earth pales into insignificance when compared to what our compromise costs us in eternity. When tempted to give into the world remember two things. Firstly that God is always watching. And secondly that your compromise now is resulting in the loss of heavenly rewards later. So Daniel and his friends serve to remind us that despite the lure of earthly rewards or luxuries in the here and now it is better to keep our eyes focused on Christ. Let us live thinking about what He desires and wants. Let us always live in faithful obedience to Him.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낯선 이교도 세상에서 순복하고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포로들이 그들의 과거를 모두 잊어버린다면 바빌론의 가치관과 문화를 더 잘 받아들이고 따를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새로운 집,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바빌론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유대 청년들이 이러한 문화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바빌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빌론인들이 호화로운 것으로 유대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서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아봐 3 년간의 탁월한 무료 교육, 멋진 숙소에 살면서 왕이 먹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겨봐. 이런 것들이 네 젊은이에게 얼마나 유혹적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우리도 타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면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표절을 조금 하면 학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빠? 다른 학생들도 그러는데! 다. 뭐가 나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개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밀로 유지한다면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작은 이익은 우리가 타협함으로써 영생에서 치르게 될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둘째, 지금 타협하면 나중에 영생에서 받을 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세상의 보상이나 호의호식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 보는 것이 훨씬 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그분께만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